

2044년 6월28일 프랑스로 인터폴본부

택시에서 내린 남자는 검은 정장에 광넨 검은 구두를 뚜벅거리며 길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갔다. ‘이름, 정운철. 국가명, 남한. 계급, 경위.’ 카드키를 보여준 남자는 검문수사대의 끄덕임을 보고 인터폴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그는 사무총장실이라고 쓰여 있는 방문에 노크를 두세 번 한 뒤 문 너머로 들어오라는 소리를 듣고 문손잡이를 돌렸다. 윤철은 절도 있게 경례를 한 뒤 사무총장의 책상 앞으로 걸어왔다.

“안녕하십니까? 빅토르 셸 총장님.”

“안녕하오. 정운철 경위라고 했던가? 한국에 요청하는 지원은 이번이 처음이라 나도 당황스러웠소. 어쨌든 여기까지 오는데 수고가 많았소.”

“인터폴의 협조 덕입니다. 한국에서 활동할 때 사건에 대해 피상적으로만 들었는데 대체 무슨 사건입니까?”

셸 총장은 경례를 받아주며 한숨을 쉬었다.

“자 그럼 그 어이없는 사건에 대해 말해볼까?”

과거의 인터폴과 달리 현재의 인터폴은 국제 범죄의 수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그 규모도 커졌고 국제법상 협정이 되어 강제조사권, 체포권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어느 나라의 국적을 가진 범죄자는 해당국가의 담당형사가 그 사건의 주요조사권을 얻게 되고 극비에 조사를 실행한다. 윤철은 한 달 전 한국국적의 범죄자가 각국에서 엽기살인을 저지르는 사건에 대해 극비로 알게 되었고 자진해서 담당형사가 되었다. 그리고 윤철은 최근, 현재 인터폴본부가 있는 프랑스에 범인의 신원이 확인되어 프랑스로 본부까지 오게 되었다.

“자네를 따로 부른 것은 이 사건이 황당할 정도 말도 안 되는 사건이기 때문이라네. 일명 발광다이오드 사건이라네.”

“예? 그게무슨…….”

“나도 믿을 수 없었지만 사체의 상태를 보면 믿게 될 수밖에 없을걸세”

청장은 모니터의 스크린을 탁자위로 옮겼다. 스크린에는 총 90구의 익사당해 몸이 통통 불어터진 시체들이 있었다.

“모든 피해자들은 부검결과 익사로 판정되었고, 시체가 모두 바다에서 건져져 폐에 물이 가득했다네. 특히 귀옆을 잘 보게나.”

90구의 시체 모두 귓바퀴 뒤편에 작은 단말기 비슷한 것이 박혀있었다. 더욱 확대시켜 보니 단말기는 빨간 발광다이오드가 달려있어 붉게 빛나고 있었다. 윤철은 도무지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으며 미간을 찡그렸다.

“이것들이 다 무엇입니까? 보청기? GPS? 왜 귀 뒤편에? 그것도 누가 강제로 박아 넣은 듯합니다.”

“보청기도 GPS도 아니라네. 국제 과학원이 조사해본 결과 자동작동금속물 같다고 하였으나 이것이 무슨용도인지 알아보려 연구원들이 기계에 충격을 가하자 기계가 자폭해 터져버렸다네. 다행히 연구원들은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이 금속물이 무슨 용도이고 범인이 어떻게 피해자들을 죽였는지 점점 미궁 속으로 빠졌다네.”

“그래도 범인의 신상은 어느 정도 확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스페인에서 프랑스로 이동했다고 들었습니다. 그 금속물과 범인의 체포는 상당히 관계있는 것입니까?”

“사망자가 무려 90명이나 되고 모두 같은 금속물이 박혀있는 공통점이 있는데 관계없을 리가 없지 않은가. 이번에도 사상자가 발생한다면 그 사상자 또한 그 금속물이 박힌 채로 발견 될 걸세. 우리는 범인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금속물이 무엇인지 알아내야할 걸세.”

셀 총장이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지만 윤철은 더욱 강인한 표정으로 말했다.

“총장님의 의견도 매우 지당하지만 우선 피해자의 속출을 막아야합니다. 2주에서 한 달 마다 범행이 일어났습니다. 앞으로 일주일후면 범인의 범행기간에 접어들게 됩니다. 금속물과 범행사이의 관계를 무시할순없지만 범인의 프랑스입국이 확인되었으니 그것부터 따라야합니다.”

셀 총장은 몇 분간 고민 하는 표정을 짓더니 다시 말했다.

“알겠네. 인터폴은 일단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막게나. 프랑스 경찰을 동원에 그 금속물에 대해 조사하겠네. 범인이 마지막으로 확인된 곳은 브르타뉴의 브레스트에 있는 어느 호프라고 하더군. 자세한 설명은 브뤼셀경감에게 들도록 하게.”

“알겠습니다.”

2044년 6월28일 14시경 프랑스 브르타뉴, 브레스트 항구

브뤼셀은 선박 티켓판매소 직원에게 다시 한 번 말했다.

“정말 이런 사람 못 봤습니까? 다시 한 번 생각해보세요.”

“아뇨. 그날은 스페인에서 오는 배도 없었을 뿐더러 그렇게 생긴 사람도 없었어요.”

“젠장. 여기가 마지막 항구일 텐데.”

윤철은 브뤼셀 뒤에서 범인의 몽타주를 뚫어져라 응시하고 있었다. 그러자 무엇인가 생각난 듯 휴대폰으로 열심히 검색하더니 브뤼셀의 어깨를 흔들며 말했다.

“아냐. 여기도 아닌가봐. 배가 아예 안 들어왔었단다.”

“그게 아니에요! 이 범인 어디선가 많이 본 듯한 얼굴인거 같았는데! 한때 한국 과학계암암리에서 각광받던 인물이에요. 이름은 심이환. 물과 같은 바다 속에서 인간은 물고기와 같은 어류로 변할 수 있다는 이론을 주장했어요. 그 당시 몇몇 과학계 반응은 증명만 한다면 노벨상까지 언급할 정도로 뜨거워서 대중들도 어느 정도 알았어요.”

“근데 그 정도의 엄청난 성과를 이룬 과학자가 해외에서는 왜 전혀 알려지지 않았지? 노벨상도 말이야. 그 정도의 성과를 이뤘다면 받아도 충분할거 같은데”

브뤼셀이 미간을 찌푸린 채 의문을 품었다.

“그 사람 갑자기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어요. 그 이론에 대한 증명을 발표하려던 날 아무런 흔적도 없이 자취를 감췄어요.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이니 까 50대에서 60대쯤 되었을 겁니다. 이 사진처럼 장발에 큰 키도 똑같아요. 그런데 이 자가 타고 있는 휠체어는 좀 의외군요.”

“휠체어를 탔다면 분명히 본 사람이 있을 텐데…….혹시 공범의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닌가?”

“만약 공범이 있다면 동종업계 종사자일 확률이 높으니 이곳에 있는 연구실을 모조리 뒤져봅시다.”

브뤼셀과 윤철은 주차장으로 돌아가 자동차에 시동을 걸었다.

2044년 6월28일 21시경 프랑스 브르타뉴. 브레스트 대학교

윤철은 피로에 쌓인 눈을 감았다 뜨며 브레스트 대학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며 말했다.

“브뤼셀경감님. 이제 이 대학교의 실험실에도 없다면 브레스트를 떠나야 할 것 같습니다. 브레스트의 모든 기관의 연구실을 샅샅이 뒤져봐도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아니. 우리는 브레스트를 떠나지 않아. 왜냐하면 그 녀석은 반드시 여기에 있을 테니까.”

둘은 차에서 내린 뒤 생명학 교수의 안내를 받아 실험실로 들어갔다. 실험실에 들어가 생명과학과 학생 모두에게 이 사건이 극비임을 알리고 한명씩 범

인의 몽타주를 보여줬다. 대부분 처음 보는 얼굴이라고 하고 그에 대해 전혀 모르는 것 같았다. 3명 정도의 학생이 남았을 때 윤철은 학생 중 한명이 사라진 것을 확인했다. 실험실 뒷문이 열려있는 것을 보고 윤철은 뒷문으로 나가 도망친 학생을 찾으려 했지만 더 이상 그곳엔 없었다.

“브뤼셀 경감님! 학생 한명이 사라졌습니다!”

브뤼셀이 벌떡 일어났다.

“뭐라고? 당장 경비원들한테 학교의 모든 문을 봉쇄하라고 해! 난 인터폴 본부에 지금 당장 연락할게. 인력이 10분 안쪽으로 도착할거야. 그리고 지금 그 학생을 찾으러 갈 테니 경비들에게 먼저 알려주게.”

윤철은 브뤼셀에게 재빨리 꼬덕이고 실험실을 뛰어나와 경비실로 달려가던 도중 누군가 달려가는 발소리를 듣고 몇 초 고민한 뒤 발소리가 난 쪽으로 방향을 돌려 발소리를 쫓아 달렸다. 발소리는 실험실이 있는 지하를 벗어나 엘리베이터를 통해 캠퍼스 밖으로 향하고 있었다. 윤철은 엘리베이터 옆 비상구계단으로 뛰어나가 엘리베이터보다 약간 늦게 출구로 나왔다. 발소리와 의 격차는 조금씩 줄어들게 되었고 멀리서 들렸던 발소리는 가까이서 들어 보니 바퀴소리와 함께 진동하고 있었다. 공범은 범인의 휠체어를 밀고 도망치고 있는 것이다. 바퀴소리는 캠퍼스 건물 뒤편으로 사라졌고 점점 바다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윤철은 그 뒤를 놓칠세라 미친 듯이 뒤쫓아 건물뒤편으로 따라갔지만 건물의 구조가 미로처럼 복잡하게 얽혀있어서 귀에 온 신경을 집중하고 소리에 의존하여 공범과 범인을 뒤쫓았다. 점점 바다가 보이는 도로 쪽으로 오더니 높이만 20M가 넘는 바위벼랑위에서 공범과 범인의 발소리가 멈췄다. 윤철은 숨을 가다듬고 벼랑에서 가까운 건물외벽에 몸을 숨긴 뒤 총을 꺼내들며 두 명을 확인했다. 그 순간 윤철의 머릿속은 새하얗게 변해 뇌가 정지되어버렸다. 잠시 동안 뇌가 나갔지만 간신히 총을 떨어뜨리지 않았다. 휠체어에 앉아있는 인물은 후드를 뒤집어써 잘 보이지 않았고, 휠체어 앞엔 쓰러진 채 휠체어를 지키려고 버둥대는 검은 생물은, 하체는 물고기의 하반신처럼 지느러미가 파닥파닥 거리지만 상체는 20대 초중반쯤은 되어 보이는 금발의 남자였다. 남자의 귀에선 피가 흐르고 있었고 흘러내리는 피 사이로 작고 붉은 점이 번쩍거렸다.

“서……선생님……. 드……들키고 말았습니다. 어서 도망치셔야합니다…….”

금발의 남자는 순식간에 명치부분까지 비늘로 변하였다. 그리고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실패작입니다…….제가 죽더라도 선생님은 이 이론은 증명하실 겁니다……. 분명히…….분명히…….”

말을 끝낸 금발의 남자는 쓰러졌고 휠체어에 타고 있던 남자는 금발의 남자를 붙잡고 절벽 밑으로 뛰어내리려 바퀴를 힘차게 굴렀다. 그 순간 정신이 든 윤철은 총을 장전하고 경찰 공무원증을 들이밀며 소리 질렀다.

“인터폴이다! 너희 둘을 90명을 살해하고 공조한 죄로, 발광다이오드 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체포하겠다! 또한…….”

윤철이 미란다의 원칙을 읊으려는 순간 번개가 번쩍하고 앞바다에 내리치더니, 그의 무릎에 있던 담요가 날아가고 후드를 뒤집어쓰고 있던 범인의, 증오에 가득찬 심이환의 얼굴이 번쩍하고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그 얼굴엔 아가미와 비슷한 상처가 목주위에 듬성듬성 나있고 피부도 마치 비늘처럼 반짝거렸다. 무엇보다 지느러미였다. 담요가 날아간 자리엔 생선의 지느러미가 남아있었다. 그것은 분장 따위와는 수준이 다른 것이었다. 살아 숨 쉬고 있는, 비릿한 냄새가 코를 파고드는 완전한 ‘인어’의 모습이었다. 그리고 번개가 내리친 뒤 번개와 함께 심이환은 바다 속으로 사라졌다. 윤철은 냇을 놓고 있다 뒤늦게 벼랑 끝으로 달려가 철썩이는 바다를 망연자실하게 응시하다가 바다의 짙은 냄새와 6월의 따듯한 바람사이로 사이렌소리가 퍼져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자신의 발밑에 찢겨나간 종이를 발견했다. 그 종이에 이렇게 쓰여 있었다. “6월 28일 98%완성, 앞으로 남은 목적지 영국 리저드 00연구소 000 000 연구원.”

...

2024년 2월 6일 화요일 날씨 맑음

나는 32살 한국에서 태어난 심이환이다. 그 점을 잊지 말자. 나는 심이환이다. 다른 누구도 증명하지 못하고 개발하지 못했던 두 개를 한 번에 이루는 기념비적인 일이 내일 이루어진다. 어제 보스턴 로건 공항에 도착했고 내일은 하버드 대학에서 세계적인 대학의 생명학과 교수진들 앞에서 나의 이론을 증명할 것이다. 나 자신을 되뇌며 흥분된 감정을 진정시켜보자. 일기를 쓴 것은 발명다움으로 잘한 일이다. 내 결점을 반성하고 냉철하게 바라보도록 도와주었으니 말이다. 그럼 이때까지의 일을 다시 한 번 기억해보자. 어릴 적 내가 가장 좋아한 것은 인어공주였다. 남자가 인어공주 따위를 좋아한다고 멸시받긴 했지만 모두 인어의 아름다움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물은 생명의 원천이자 우리의 고향이고 물고기는 침팬지, 원숭이보다 더욱 ‘원

초적'인 우리의 조상이다. 물고기가 없었다면 애초에 인간이란 존재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물고기는 더욱 숭고한 존재이고 아름답다. 바다 속 깊은 곳의 심연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고향을 그리며 근본적이고 원초적 감동을 얻는다. 그렇기에 물속의 존재와 인간의 결합은 신과 같은 존재인 것이다. 사실 인어를 좋아하는 차원을 넘어 숭배하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이런 나의 숭배의 대상을 창조하기위해 많은 실험을 거쳐 왔다. 대학을 졸업한 뒤 인어에 대한 연구에만 몰입했다. 그러다 나와 같이 인어에 대한 관심이 많은 연구진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후원자도 생기더니 점점 큰 연구 사업이 되었다. 나의 목표는 인간이 인어가 되었다가 다시 인간으로 돌아올 수 있는 생체변화시스템 개발이었다. 하지만 인간과 물고기를 결합시키는 작업에서 첫 사망자가 나왔다. 그 후 계속된 실패와 실험자 찾기는 더욱 어려워졌고 사망자가 속출한 나의 연구는 비윤리적이라는 비판으로 중단위기에 처해져 암암리에 몰래 이루어졌고 최후의 수단을 쓸 수밖에 없었다. 바다 곳곳을 둘러 다니는 낚시 광들, 몇 천 마리의 물고기를 잡는 어부들, 그 물고기를 팔아치우는 상인들을 몇 명을 실험해보았다. 어차피 인과응보 아닌가? 물고기를 먹어치우던 놈들이 물고기에게 먹히는 것은 말이다. 그래도 나의 연구는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었기 때문에 세계 곳곳의 연구진들이 실험체조달을 원했다. 그렇게 완성된 생체변화시스템은 금속의 단말기를 귀 뒤에 꽂으면 자동으로 주사기가 뇌수까지 꽂힌 뒤 약물이 투여되어 전기신호가 전달된다. 약물은 인간의 DNA를 변화시켜 발부터 머리끝까지 점점 인어로 변해간다. 그리고 약물을 통해 들어오는 전기신호로 생물의 상태를 체크하는데, 이때 인어로의 변신이나 인간으로의 변신이 정상적일 땐 초록빛 발광다이오드가, 비정상적일 땐 빨간빛 발광다이오드가 켜진다. 하지만 대부분의 실험체들은 인어에서 인간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약물중독으로 죽어버렸다. 신은 야속하게도 나에게 에메랄드빛의 초록불 대신 죽음의 빨간불만 가져다주었다. 몇 구의 시신이 죽었는지도 모른다. 아마 몇 백구는 넘지 않을까싶다. 그래도 동료 연구원들이 잘 처리해준 덕분에 성공을 향한 에메랄드빛 문을 열수 있었다. 마침내 인어로 변신한 후 인간으로 돌아올 수 있는 실험체를 만들었다. 실험체는 20대 여성으로 어시장에서 일했다고 한다. 실험을 시작한지 12년만이다. 이 여성에게 부착한 금속물에는 '에메랄드 피쉬(emerald fish)'라는 명칭을 붙였다. 내일 강연 대에 올라 에메랄드 피쉬를 붙이고 나의 이론을 증명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오컬트와 과학계암암리 쪽에

서 근근이 알려지던 나의 이름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돌풍을 일으킬 것이다. 마음을 다잡고 침착해지자. 마지막으로 검사하기 위해 실험체에 들렀다가 자야겠다.

윤철은 며칠 전 심이환이 떨어트린 메모를 발견하고 주변을 수사한 결과 심이환의 여행 가방이 발견되었고 그 안에 있던 그의 일기를 막 읽고 머리를 한 대 맞은 듯 벌떡 일어나며 일기를 덮었다.

‘그렇다면 그 금속물들은 ‘에메랄드 피쉬’란 말인가……. 찢겨진 메모와 대조했을 때 녀석은 아직도 연구를 포기하지 않은 거야. 하지만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완성시킨 연구를 다시 시작하는 거지? 그리고 녀석의 연구는 거의 완성 되었어…….하지만 심이환 그자는 반인륜적인 실험과 살인을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했어. 그런 사이코 살인마를 절대 놓칠 수는 없어! 다른 희생자를 없애려면 누구보다 빨리 녀석의 동선을 알아내야해.’

생각을 마치자마자 호텔방 안의 전화가 요란스럽게 울렸다. 윤철이 전화를 받자마자 브뤼셀경감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정윤철 경위! 프랑스 해경의 협조로 지금 심이환의 동선을 알아냈어! 녀석은 바다로 빠진 뒤 어떤 보트가 그를 구해주는 것을 목격했다네. 그 보트를 추적해보니 범인은 영국 리저드의 한 호텔에 있다고 하더군.”

“네……? 리저드의 호텔이요? 그렇다는 건! 녀석은 나와 같은 호텔에 묵고 있어요! 리저드엔 호텔이 딱 하나뿐이라고요!”

그때 윤철의 방 위층에서 비명소리가 들렸다. 윤철은 권총과 총알 몇 개를 챙긴 뒤 조심스럽게 방문을 나섰다. 나선형 계단을 올라가 윤철의 바로 윗방 앞에서 권총을 장전한 뒤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길게 눌렀다. 그랬더니 방 안에서 무언가 와장창 깨지는 소리가 들려왔고 윤철이 이를 듣고 문손잡이를 돌리자 스크룩하고 열렸다. 방안은 각종 시약들과 유리병으로 어지럽혀있었고 유리창이 박살나있었다. 윤철은 박살난 유리창을 발견하고 유리창 사이로 목을 내밀어 밑을 내려 보자 깨진 유리조각만 보일뿐 아무것도 없었다. 다시 유리창에서 목을 빼자, 뒤에 있던 검은 물체가 소화기로 윤철의 머리를 강타했고 윤철은 피를 흘리며 검은 물체 앞으로 퍽하고 쓰러졌다.

...

윤철이 눈을 떴을 때, 머리에서 흐르던 피는 딱딱하게 굳었고, 어느 엔진실 안의 의자에 묶여있었다. 눈앞엔 온통 새까만 어둠뿐이고 엔진들은 모두 50

년 이상 멈춰있던 것처럼 녹슬어있었다. 며칠이 지났는지 감도 잡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금이라도 당장 정신을 잃을 것 같았다. 몇 시간 지난 후, 엔진실 문이 열리더니 검은 문체가 자그만 촛불하나를 들고 들어왔다. 정신이 아득했지만 윤철은 정확히 알아볼 수 있었다. 희미한 불빛에 비친 심이환의 소름끼치는 웃는 얼굴을. 이환은 더 이상 휠체어에 타지 않았고 피부에 반짝 거리는 비늘도 혈기가 감도는 인간의 피부로 변한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뚜벅뚜벅 걸어 나와 윤철의 앞에 의자를 두고 앉았다.

“형사님 여기가 어딘지 알아? 해저1000M의 잠수함 안이라고 1000M. 감도 안 오지? 나는 그저 범인을 잡으러 호텔에 들어간 건데 난데없이 해저 1000M의 잠수함이라니? 이런 어이없는 상황이지? 형사님 나에 대해 꽤 많이 조사하셨더라. 형사님 호텔방에서 발견했어. 나에 대한 자료뿐만 아니라 형사님에 대한 자료도 많더라고? 모두 조사 했지. 그러게 적당히 따라왔어야지, 이런 꼴 안 내려면 말이야. 결국 당신도 박혔잖아. 90구의 시체들처럼.” 이환은 윤철의 귀 뒤편을 가리키며 웃었다. 윤철이 귀 뒤편을 만져보자 딱딱하고 차가운 금속물이 박혀있었다. 윤철은 화들짝 놀라 소리를 질렀다.

“심이환! 당신 설마 에메랄드 피쉬를 나에게도! 당신은 이미 실험에 성공했잖아! 이런 짓을 하는 이유가 뭐야!”

윤철은 귀에 박혀있는 금속물을 빼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밧줄로 단단히 묶여있어 손 하나 움직일 수 없었다.

“이유……. 그 이유는 바로 당신 같은 인간들 때문이었지. 나는 실험에 성공했어. 어떻게 인간이 약물중독을 이겨냈을 거라 생각하나? 실험증명 바로 전날. 마지막 체크를 하러 여자 실험체가 있는 대학 연구실로 갔지. 그 여자의 에메랄드 피쉬를 작동시킨 뒤 잠시 등을 돌린 그 순간 마취되어 있는 줄 알았던 그녀가 인어로 변화시키는 약물이 든 주사기를 내 목뒤에 꽂아버렸어. 그리고 자신의 에메랄드 피쉬를 파괴시켜 폭발이 일어났고 그 여자는 죽고 난 영원한 인어가 되었지. 그 일만 일어나지 않았다면……. 모든 게 완벽했을 텐데! 그리고 난 알아냈지. 그 여자가 인어에서 인간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살고 싶다는 강한 의지에서 나오는 호르몬에 의한 작용이었다고. 하지만 그 여자가 죽어버려 그 호르몬을 추출할 수 없었기 때문에 20년 동안 그러한 의지를 가진 인물을 찾아 다녔어. 조금씩 조금씩 실험체들의 호르몬을 추출했지. 인어로 변한 20년 동안 난 하루 중 12시간은 바다에 있어야 했고 지느러미와 작은 이빨 때문에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먹지

도 못했지. 인간으로 돌아갈 수 없음과 실험을 증명해내지 못했다는 좌절감은 나를 더더욱 연구에 집착하게 했어. 하지만 결국 만났지. 당신이 날 쫓고 있었던 건 알았지만 자진해서 사건의 담당을 맡을 정도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건 몰랐어. 난 당신보다 강한 의지를 가진 이를 보지 못하다고 느낄 정도로 강한 호르몬을 가지고 있더군. 덕분에 실험을 완벽하게 증명해낼 수 있게 되었지. 형사님 지금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게 신기할 정도야. 하지만 몇 시간이 지나면 다른 실험체들처럼 죽어가겠지만…….”

윤철은 이환의 말을 듣고 격분하였지만 점점 의식이 희미해지고 발부터 인어화가 시작되었다. 이환은 의자에서 일어나더니 주머니에서 권총을 꺼내 엔진실 천장과 벽면에 미친 듯이 쏘댔다. 구멍 난 천장과 벽에서 물이 스치면 베일 듯이 쏟아져 내렸고 엔진실이 빠른 속도로 침수되기 시작했다.

“곧 그 인어화도 풀리면 인간으로 돌아가 죽겠지……. 바다의 신성함과 함께 잠들기를 정윤철 형사.”

이환은 엔진실 문을 열고 인어화 한 뒤 바깥으로 빠져나갔다.

‘안 돼……. 거의 다잡았는데…….이렇게 포기할 순 없잖아! 뭔가 빠져나갈 만한 곳을 찾아야해! 실험체로 죽어간 사람들을 위해 밝혀내야해!’

윤철이 밧줄에 묶인 몸을 몸부림치다보니, 인어화하여 피부가 미끈거리는 비늘로 변해 조금씩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왼쪽 손을 조금씩 얼굴로 뺄 수 있게 되자 부들거리는 손으로 자신의 이빨하나를 뽑았다. 그 이빨은 인간의 몇 배는 작았지만 날카로워서 목에 감긴 끈을 끊을 수 있었다. 목에 감긴 끈을 끊고 나머지 끈은 몸을 수그러 이빨로 끊었다. 윤철은 정신이 몇 번씩 아득해졌지만 비틀거리며 이환이 버리고 간 권총을 찾아냈다. 총알은 한발 남아있었다. 바닥을 기고 기어 마침내 창문으로 도망치려는 이환을 찾아낸 윤철은 이환을 향해 방아쇠를 당겼지만 물속에 침수되어버렸기 때문에 남아있던 총알은 불발탄이었다. 마지막기회를 잃은 좌절감에 윤철은 픽하고 고개를 숙였다. 죽을 위기에 처했던 이환은 안심했지만 윤철에게 걸어가 확실히 마지막을 짓기로 마음먹었다.

“분명 지금쯤이면 정신도 제대로 못 차릴 텐데. 젠장! 내가 너무 만만히 봤군. 확실히 내 눈앞에서 죽어줘야겠어!”

이환이 윤철의 바로 앞까지 온 그 순간. 윤철이 고개를 획 들고 잡고 있던 권총의 모서리로 이환의 에메랄드 피쉬를 깡 하고 내려쳤다. 이환은 깜짝 놀라 뒤로 자빠졌고 당황할 새도 없이 콰콰콰 콰 하고 폭파했다.

2044년 7월15일자 미국의 한 방송국의 기사

[북대서양 인근 섬에서 폭파된 잠수함 발견]

북대서양 인근 섬에서 민간 잠수함이 발견되었다. 잠수함의 기종은 2004년에 쓰이던 40년은 넘은 구식 잠수함이다. 잠수함을 처음 발견한 산타크루스 다그라시오자의 주민은 잠수함이 마치 누가 끌어다 둔 것처럼 물밖에 나와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잠수함 내부는 폭발이 일어난 듯 많은 부분이 너덜너덜 거리는 걸레짝 같았다. 더욱 미스터리한 점은 잠수함 안에 이번년도 6월달 기사 등 며칠 전까지 사람이 생활한 흔적이 있지만 사람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포르투갈 경찰당국은 더 조사를 하여 실종자가 있는지 수색한다는 입장이다. 인터폴 또한 적극적으로 실종자 수색에 나섰다. 또한 버뮤다 지대 주변에서 스쿠버다이빙을 하던 스쿠버다이버들에 의해 의문모를 괴생명체가 발견되는 등 이러한 사건사고로 인해 네티즌들은 바다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

-끝-